베이징올림픽 D-79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지진 대참사 계기 민족애 고취 올림픽 개최 불안감 가라앉혀

중국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시작은 좌절, 그 실마리는 티베트였다. 독립요구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는 비난이 집중되면서 세계 여론의 뭇매가 집중됐다. 연초 폭설부터 시작돼 잇따라 터진 악재들은 8월 8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걱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쓰촨(四川) 대지진은 사태를 극적으로 반전시켰다. 참혹한 불행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대참사를 계기로 중국의 뜨거운 민족애, 조국애가 부각된 덕분이다. 당 지도부의 헌신이 가장 돋보였다.

행정을 총괄하는 영도급 지도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참사 현장에서 온몸을 던졌다. 칠순을 눈앞에 둔 노령의 지도자가 험난한 재해현장을 며칠씩이나 누비면서 이재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이재민들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아예 운동화 차림으로 나섰다. 이재민들과 구조대원들이 있는 현장 곳곳에 뛰어들었다. 삽을 쥔 이재민들의 손엔 절로 힘이 들어갔다.

자원봉사자들의 저력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생업을 팽개치고 재난 현장에 뛰어들었다. 한 재해지역에만 그 수가 9천 명이 넘을 정도다. 한 스포츠카 동호회는 주말경기 대신 차에 구호물품들을 싣고 500km가 넘는 재해현장으로 달려갔다.

지난 19일 중국 안후이성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쓰촨 대지진이 발생한 5월 12일을 촛불로 새겨놓고 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놀라운 건 티베트인들마저 라싸(拉薩)의 포탈라궁 광장에 모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식을 열었다는 점이다.

애도는 전국을 뒤덮었다. 지난 19일부터 오후 2시28분만 되면 길 가던 모든 행인들과 자동차들이 멈추고 3분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천안문 광장과 공공기관 건물들엔 조기가 내걸렸다. 영화관, 국립대극원, 유원지 등은 모두 사흘간 영업을 중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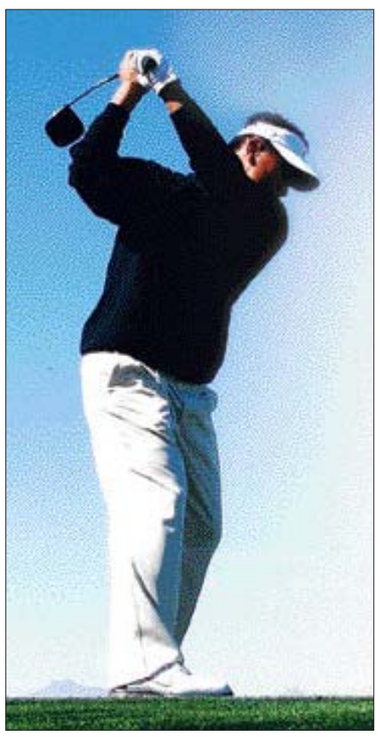
중국 당국이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을 희생자 애도의 날로 정했기 때문이다. 5천 년 역사상 애도의 날을 정한 건 유례없는 조치다. 중국이 변하고 있는 증거다.

결국, 서방이 굴복했다. 영국의 BBC는 'Wild China'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의 자연을 자세하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해 새롭게 눈 뜨겠다는 각오를 비쳤다. 로이터 통신은 참사현장에서 당 지도부가 보인 지도력에 찬사를 보냈다.

스페인의 스포츠 전문지인 마르카 신문도 벌써 중국의 팬이 됐다. '마드리드 경기와 중국의 공동운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올림픽은 쓰촨을 위해 뛰겠다'는 축구팀 주장의 멘트를 여과 없이 실었다. NBA농구 선수들도 공익성 광고를 찍고 성금 모금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3만여 명의 참사 희생자들이 올림픽을 불과 80여 일 앞두고 조국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바꿔놓은 셈이다. 자연 올림픽에 대한 불안감도 가라앉았다.

대지진은 분명 비극적인 참사다. 그러나 비극을 의연하게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다시 행복과 웃음이 찾아올 수 있음을, 중국인들은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jrjkrccm@paran.com



최경주 "시즌 2승 도전"

내일 PGA 크라운플라자 인비테이셔널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4경기 연속 '톱 10' 진입에 실패한 최경주(38·나이키골프·사진)가 신발끈을 조여맸다.

2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골프장(파72·7천54야드)에서 열리는 크라운플라자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최경주의 목표는 시즌 두번째 우승컵이다.

소니오픈을 제패하며 시즌 초반에 일찌감치 우승컵을 챙겼던 최경주는 지난 3월 매치플레이챔피언십 8강 진출 이후 한국프로골프 SK텔레콤오픈 정상에 올랐지만 PGA투어에서는 4개 대회에서 한 번도 '톱 10'에 들지 못했다. 특히 최근 2개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다. 마스터스에서 공동 41위에 그쳤고 플레이어스챔피언십에서는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때 5위까지 올라갔던 세계랭킹도 8위로 내려 앉았고 상금랭킹도 11위까지 밀린 최경주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특급 대회에 대비해 심기일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경주는 크라운플라자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서고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크라운플라자 인비테이셔널은 최경주가 한 번도 '톱 10'에 들지 못했지만 네번 출전해 25위 밖으로 떠어진 적도 한번 밖에 없어 코스와 궁합은 비교적 잘 맞는 편이다.

PGA 투어 공식 홈페이지는 "최근 잠잠하지만 텍사스 주민인 최경주는 콜로니얼골프장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며 우승 후보 5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았다.

최경주와 우승컵을 다툴 선수는 세계랭킹 2위 필 미켈슨, 짐 퓨릭, 케니 페리(이상 미국)와 작년 우승자 로리 사바티니(남아공) 등이다. 상금랭킹에서 최경주에 앞선 7위에 올라 있는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과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 나상욱(24·코브라골프),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도 출전한다.

이승국 한국체대 총장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차기 대한체육회장을 놓고 경합중인 '빅3'가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이승국 한국체대 총장은 20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6대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측근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또 이연택 전 체육회장은 아직 공개적인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회장 선거 입후보 서류를 접수시켰다.

김정길 전 회장의 중도사퇴로 인한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는 이번 선거는 이에 따라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친 김정행 대한유도회 회장 겸 용인대 총장과 이승국 총장, 이연택 전 회장이 팽팽한 삼파전으로 치열한 득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한국여자 프로골프(KLPGA)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앞두고 20일 강원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연습 라운딩 중인 박지은이 벙커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 중계

21일 (수)

▲KBSN배 제5회 전국 춘계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전(12 : 30·KBS N S-PORTS)

▲2008 대학배구 하계대회〈명지대 : 조선대〉〈한양대 : 인하대〉(12 : 50·SBS스포츠)

▲208 베이징올림픽 세계여자배구 최종예선〈대한민국 : 폴란드〉(15 : 30·KBS N SPORTS)

▲2008 프로야구〈두산 : 한화〉(18 : 20·MBC ESPN) 〈기아 : 롯데〉(18 : 20·X-ports) 〈SK : 우리〉(18 : 00·SBS스포츠) 〈LG : 삼성〉(18 : 00·KBS N SPORTS)

매치플레이 여왕 가리자

KLPGA 두산 챔피언십 내일 개막

신지애·박지은·안선주 등 샷 대결

'매치플레이의 여왕을 가리자'

두 선수간의 숨박히는 대결이 펼쳐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22일부터 나흘간 춘천 라데나 골프장(파72·6천381야드)에서 열린다. 사흘 또는 나흘간 타수 합계로 우승자로 가리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달리 매치플레이는 두 선수가 맞대결해 홀을 많이 따내는 쪽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여자프로골프에서는 2001년 SBS 최강전 이후 7년 만에 매치플레이 대회가 성사됐다.

2년여만에 한국을 찾은 박지은(28·나이키골프)이 돋보인다. LPGA 투어에서 여섯 차례 우승한 박지은은 특히 매치플레이로 치러지는 미국 아마추어대회에서 50여차례 정상에 올랐던 풍부한 경험이 장점이다.

시즌 네번째 우승을 노리는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또한 18일 끝난 한국여자오픈에서 신지애와 연장 세번째홀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던 유소연(18·하이마트)을 비롯해 지은희(22·휠라코리아), 안선주(21·하이마트)의 샷 대결도 불을 뿜는다.

신지애 세계 랭킹 6위

신지애(20·하이마트)가 여자골프 세계랭킹 6위까지 올랐다.

지난 18일 끝난 태영배 제22회 한국여자오픈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20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7위에서 한 계단 뛰어올랐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여전히 선두를 지켰다.